

15분 모의고사 2회 정답 및 해설  
(0509 모의평가)

문 법

1.① 2.⑤

1. 단어 형성 방식의 이해와 적용 / 정답 ①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은 ‘접사+어근’의 파생법에 관한 설명이다. 특정한 뜻을 더하는 접사가 어근 앞에 붙어 새말이 된 것을 찾아보면 된다. ①에서 ‘강-’은 (몇몇 명사, 형용사 앞에 붙어) ‘호된’ 또는 ‘심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므로 ①이 적절하다. (이와 같은 원리로 만들어진 단어에는 ‘강더위/강추위/강발다.’가 있다.)

[참고] \* ‘강-’ ㉠ 『몇몇 명사 앞에 붙어』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강굴/강된장/강술/강참숯/강풀. ㉡ 『몇몇 명사 앞에 붙어』 ‘마른’ 또는 ‘물기가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강기침/강모/강서리. ㉢ 『몇몇 명사 앞에 붙어』 ‘억지스러운’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강울음/강호령.

\* 강(強)- :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매우 센’ 또는 ‘호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강염기/강타자/강행군.

오답피하기: ② ‘첫사랑’의 ‘첫’은 ‘맨 처음’의 뜻을 지닌 관형사이다. ③의 ‘새’도 관형사이다. ④ 앞-은 ‘알다’의 어근이므로 알보다는 합성어이다. ⑤ ‘군밤’도 ‘구운+밤’의 합성어이다.

★ 생각하자

1706모평 15번에서는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에 대한 문항이 출제되었고, 1709모평에는 직접구성요소 분석을 통한 복합어 분석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단어형성 관련 기출문제는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문항이므로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출에 나온 예시는 반복 출제되므로 분석을 통해 단어형성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단어의 쓰임의 적절성 / 정답 ⑤

와중(渦中)은 ‘㉠흐르는 물이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주로 ‘와중에’ 꼴로 쓰여』 일이나 사건 따위가 시끄럽고 복잡하게 벌어지는 가운데.’의 뜻을 지닌다. 따라서 ⑤가 적절하지 않다. ⑤는 모두들 편안하게 잠든 ‘시간임에도’가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① 모임이나 회의를 주최하여 연다는 뜻이므로 ‘개최(開催)’가 적절하다. ② ‘뜻밖의 일에 얼굴빛이 변할 정도로 놀라다’의 뜻으로 아연실색(啞然失色)하다가 적절하다. ④ ‘곤혹(困惑)스럽다’는 곤란한 일을 당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뜻이다. (참고로 곤욕(困辱)은 심한 모욕의 의미이다.)

★ 생각하자

이 문제를 풀면서 마치 16수능의 15번(다음 중 문법적으로 가장 정확한 문장은?)처럼 당황스럽지 않았나요? 물론 16수능 15번은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는 문장을 찾는 것이지만, 이 문제는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어휘 문항은 반드시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와중에’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맥락에서 쓰인다는 것을 알아두어야겠죠? 기출을 분석하면서 어휘(특히 한자어)의 의미가 헛갈린다면 반드시 사전을 찾고, 문맥적 의미를 알아주세요. 독서는 물론, 선택지 분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독 서

3.③ 4.③ 5.④ 6.①

★ 생각하자

이 지문을 선별한 이유는 글 구조 때문입니다. 1문단에 마지막 줄에 열거의 표현(a, b, c)이 있으면, 앞으로 글이 열거된 대상을 병렬식으로 설명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이글은 1문단에서 원소가 ①우주가 생겨날 때, ②별의 진화과정에서, ③별이 폭발할 때 만들어 진다고 밝히고, 2문단에서 ①, ②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원소를 설명하고, 4문단에서 ③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원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읽으면서 ①, ②, ③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원소를 각각 정리하면서 읽고, 그 특징을 파악하면 세부내용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주세요. <1문단의 열거=글 구조도 나열=따라서 특징을 찾으며 읽는다!>

3. 미루어 알기 / 정답 ③

첫 문단에서 밝혔듯이 ‘지금까지 알려진 원소의 종류는 약 100여 종’이나 되는데, 둘째 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그 중에서 ‘우주가 생성될 때 일어난 대폭발로 수소와 일부의 헬륨이 생겼다.’고 했으므로, ③의 진술이 제시된 정보와는 거리가 멀다.

4. 서술상의 특징 파악 / 정답 ③

첫 문단에서 생성 기원에 따른 원소의 갈래를, ‘우주가 생겨날 때 만들어진 것,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 별이 폭발할 때 만들어진 것’으로 묶어 서술하고 있다.(㉠) 또한, 둘째 문단에서 ‘핵융합’의 개념을, 셋째 문단에서 ‘핵자’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생각하자

1806모평 22번에서 설명방식을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최근까지 수능에서는 글 전체 수준에서의 전개방식을 물었지만, 1806모평 22번에서는 문단수준에서의 설명방식(내용전개방식)을 물어봤죠? 이러한 내용은 4번 문항처럼 예전에 많이 묻던 문제유형입니다. 정의, 예시, 분류, 분석, 비교, 대조, 유추 등의 설명방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5. 정보간의 유기적 관계 파악 / 정답 ④

넷째 문단에서 ‘핵융합에 의해 만들어진 철이 많아질수록 별의 수축이 일어난다’는 문장에 착안하면, 별 내부의 철의 축적과 별의 수축은 인과적 관계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별의 수축이 원인이 되어 별의 중심부의 온도가 상승하다가 한계점에 이르면 별이 폭발하게 되는 것이다.

★ 생각하자

인과 관계를 묻는 문항입니다. 하지만 1806모평 22번의 ③번 선택지(공개 시장 운영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를 생각해보면, 인과 관계는 과정을 함께 드러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문에서 (~할수록 ~한다 / ~면 ~한다)와 같은 표현이 있으면 세부내용일치에 자주 출제된다는 것은 기출을 분석한 수험생들은 익히 알고 있는 패턴입니다. 이러한 출제의 패턴을 적용해서 풀이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6. 정보 도식화의 적절성 판단 / 정답 ①

㉠에서, 철보다 가벼운 원소는 질량이 클수록 핵자결합에너지가 크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질량이 클수록 핵자결합에너지가 작다고 하였는데, 이를 그래프로 그리면 ①의 형태가 된다. 정답에 제대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의 앞부분 진술도 유념해서 본다. 일시적으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더라도 다시 안정된 철로 되돌아간다는 정보로 보아 철이 가장 높은 핵자 결합에너지를 가진다는 것도 참고한다.

★ 생각하자

그래프나 도표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여전히 4등급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프는 단순히 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묻는 사실적 독해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저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 (1) 그래프의 X축과 Y축의 값이 무엇인지 반드시 체크한다. (X축을 아무 생각 없이 시간으로 생각하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국어에서 그래프가 나오면 X축과 Y축 값이 항상 다릅니다. 반드시 점검하세요.)
- (2) X축과 Y축에 나온 값(원소의 질량, 핵자결합에너지)를 설명하는 문단을 찾습니다. (다행히 이 문제는 ㉠에 밑줄이 있죠? 그러나 최근의 수능은 어느 부분과 관련된 것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 (3) 관련 문단과 그래프를 함께 이해합니다. (㉠의 4번째 줄에서 철보다 가벼운 원소는 질량이 클수록 핵자 에너지가 크지만 (그래프: ↗)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질량이 클수록 핵자 결합 에너지가 작다(그래프: ↘)으로 그래프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고 전 소 설

7.④ 8.③ 9.② 10.③

7. 작품의 종합적 감상 / 정답 ④

대화 형식으로 전개되는 본문에서는, 신선의 존재에 대한 삽화,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한 삽화, 훌륭한 맛에 대한 삽화, 불사약에 대한 삽화 등이 차례로 화제로 등장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작품의 구체적인 공간적 배경을 확인할 수 없다. ② 대화 형식으로 전개되고는 있지만 화자간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민 영감의 말에 모두들 감화되는 양상을 보여 준다. ③ 거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인물의 심리 묘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⑤ 대부분의 고전 소설들과 마찬가지로 만연체로 전개되고 있다.

★ 생각하자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고 민 영감이 대답하는 구조로 서사가 전개되지만, 그 질문들 간의 인과성(필연성)이 떨어지며, 질문과 답이 나열되는 형태로 전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능특강의 ‘광문자전’도 광문의 일화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같이 알아두면 좋겠죠?

8. 미루어 알기 / 정답 ③

손님들이 민 영감에게 던진 질문들은 당시의 정치 현실과는 무관한 것들이므로, ③은 잘못된 추론이다. 그들은 올바른도가 아닌, 헛된 생각을 좇고 있을 뿐이다.

오답피하기 : ① 민 영감의 대화 내용에서 그가 매우 학식과

견문이 풍부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② 민 영감은 속세를 싫어하는 가난한 자가 바로 신선이라고 하였고, 불사약은 ‘밥’만도 못한 것이라고 하여, ‘신선’과 ‘불사약’에 대한 통념을 깨뜨리고 있음에 주목한다. ④ 첫 문단에 나타난 민 영감의 태도로부터 추리할 수 있다. ⑤ 허황되기는 하지만 손님들이 던진 질문 속에는 그들의 소망이 용해되어 있다.

**9. 인물의 의도 추리 / 정답 ②**

대화 속에서 민 영감은 토끼와 두꺼비의 대화 형식을 빌어 자신의 인식과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민 영감은 경험을 많이 한 자가 가장 나이가 많은 자라는 논리를 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고, 많은 지혜를 배울 수 있음에 착안할 수 있다.

**10. 소설 대화의 기능 이해 / 정답 ③**

먼저 <보기>의 내용을 통하여 ‘측면 공격이나 역습’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측면 공격이나 역습’은 속뜻이 담겨 있는 말이나 대상에 대한 풍자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은 어휘 본래의 의미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내용이어서 풍자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피하기 : ㉡, ㉢, ㉣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생각을 뒤집는 속뜻이 담겨 있는 말이고, ㉤는 농민들을 착취하여 폐를 끼치는 관료를 풍자한 말이다.